

“망치를 든 농부, 호미를 든 목수” 협동조합 얼뚝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사회적 경제 도민기자단
유 재 준



‘농부들의 집짓기 협동조합’, 얼뚝의 초창기 명함이다.

홍성1호 협동조합인 얼뚝 생태건축협동조합(since 2013.1.31., 이하 얼뚝)이 2021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얼마 전 홍동면 상업지구에 겹경사를 축하하는 상징적인 현수막이 걸렸다. 마을기업 선정과 2세 조합원 탄생을 자축하는 현수막이다.



얼뚝 생태건축협동조합 현판



조합원의 마을재능기부

처음에는 건축가의 영역을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빨리(함께) 똑딱(쉽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조합 이름도 ‘얼렁뚱딱 집짓기노동자협동조합’으로 지었고, 이후, 지금의 ‘얼뚱 생태건축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2021년도 얼뚱의 “가치와 지향점,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9년이 지난 이들의 변화와 진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2013년 눈 내리는 겨울밤에 8명의 주민이 흥동마을의 한 건물에 모여 창립 절차를 위한 모임을 진행했다. 흥성 1호 협동조합인 ‘얼렁뚱딱 협동조합’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이미 조합결성 전에 집 여러 채를 지었다.

생태건축으로 알려진 스트로 베일(압축한 사각벚단으로 짓는 생태주택)과 양파망에 흙을 넣어 벽을 쌓아 만든 흙부대집 그리고 농막형태의 작은집 등이다. 이에 자신감이 붙은 목수 유망주들은 좀 더 조직적인 힘과 사람이 필요했다. 마침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던 시기라 협동조합 결성 붐이 불고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호의적이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 딱 맞는 옷차림이었다.



얼뚱 양파망 벽체시공



얼뚱 흙집 건축

“의식주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려 시골에 왔는데 왜 집은 건축가에게 맡기는가? 우리는 왜 다른 동물처럼 스스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지 못하지?”

얼뚱은 이런 의문에 해답을 찾고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운영에 있어 자주, 자립, 자치, 공동소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복지를 높이고 생태 집 짓기에 힘쓰며 사회 기여와 연대에 뜻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초

창기의 얼뚱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수 많은 협동조합이 그랬듯이 시작은 원대했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호혜적 경제활동이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얼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합원 비폭력대화교육



얼뚱생태건축협동조합 조합원

사회적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처음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작할 때 공동체성에 더 많이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이 하나의 경제주체 라면, 이를 기반으로 한 변화는 지금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경제체제에서 출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슬로건은 추상적이다. 이러한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가로 막는 사회적 제약도 만만치 않다.



얼뚱 건축수업생



얼뚱 생태건축 1

초창기 얼뚝은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이용하여 생태건물을 주로 지었다. 지금은 경량 목구조 주택을 많이 짓는다. 되도록이면 생태건축을 짓는 것을 권유하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의 작업 참여를 유도하여 견적부터 완공까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얼뚝 조합원은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금은 도배를 제외한 전 과정을 얼뚝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집 한 채를 똑딱 완성한다. 동네 정자, 목조그네,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시설까지 다양한 건물 시공을 내부 기술력으로 완공했다. 얼뚝의 건축영역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



얼뚝 목조주택



얼뚝 생태건축 2

얼뚝은 마을의 공익적인 작업 의뢰가 들어 오면 임금을 반값으로 줄인다. 경우에 따라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매년 열리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 얼뚝의 노동력 동원은 당연시 되고 있다. 동네 집수리 등 재능기부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협동조합 간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형 인간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

얼뚝은 처음부터 개성 강한 인간들이 모여 있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조합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히려 운영 안건에 대한 토의는 합리적 합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진다고 한다. 참여하게 대립되는 안건은 장기간 논의되어 진다.

설립 후 활발한 활동으로 조합보유금(?)이 쌓여 3년 전 30여 명의 조합원 가족이 3박 4일 간 제주도 여행을 통해 서로 간의 연대와 협동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용 1톤 트럭도 사고 조합 사옥을 세울 땅도 매입했다. 분배구조도 현실에 맞게 변화를 주었다. 현장소장을 맡는 조합원은 순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할 수 있게 성과급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은 조합내 성과급은 오래된 난제였고 밀렸던 안건 중의 하나였다.



재능기부활동



에너지 자립 컨테이너
(적정기술협동조합과의 협업)

이러한 얼뚱의 협동을 위한 노력과 가치추구를 위한 활동은 202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그 영역을 확장할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용도 작업공간과 사무실을 짓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마을에서 함께 하는 얼뚱은 동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목공 공방과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빈집 수리 컨설팅과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여 협동과 상생을 위해 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자본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마을과 함께 하는 얼뚱

협동조합의 생명인 협동과 연대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

출하고 조합원에게 공정한 분배를 통해 조합의 지속 가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얼뜩의 조합원은 농사도 짓고, 건축 일도 하며 마을총무, 단체 사무장 같은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마을과 함께 하며 협동을 통해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극복해 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협동의 세월을 같이 한 조합원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한다. 이러한 동안에 신뢰가 생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얼뜩 협동조합 부지(홍성군)



홍동의료생협 부속 목조

그리고 얼뜩의 성장은 이들이 직면했던 협동과 시장에서의 현실적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협동의 세월로 단련된 얼뜩 조합은 조합원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무형자산을 만들었다. 마을기업 얼뜩은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벼단을 압축하여 지은 스트로 베일 집처럼 단단한 신뢰와 훈훈함과 오래된 정원처럼 친숙한 동네 목수 또는 협동조합으로 오래 동안 남기를 바란다.

목조주택 및 생태건축, 농촌빈집수리 컨설팅
각종교육 및 강연, 생태놀이터 조성 등
얼뜩생태건축협동조합(대표 이연진, 010-8845-1974)